

# 자산계층별 사교육비지출과 재무성과의 관련성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According  
to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강사 박진영\*

Dept. of Human Ecology, Kyungsung Univ.

Lecturer : Park, Jin-Yeong

##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on financial performance. The data from 1,669 households were taken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mean of monthly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was 257,400 won for all households. Almost 66% of households encountered an economic burden in paying for private education.
- (2) The mean of financial performance in all households was 31,420,000 won and those with higher assets showed the greatest financial performance (112.8 million won net gain).
- (3)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were different in all households.
- (4)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performance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was verified partially. The association was proved in the middle assets group.

▲주요어(Key Words) : 사교육비(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자산계층(asset level),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

## I. 서 론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사교육 문제이다. 1960년대부터 과열과외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시작되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교육의 역사는 매우 깊다. 상급학교 진학과 대입경쟁으로 인한 과열과외가 사회문제화 되자 1980년에는 급기야 과외를 법으로 금지하여 단속하기에 이르렀다(양승실, 2001). 이후 점차로 규제가 완화되어 1989년 대학생 과외가 허용되고 1991년에 초·중·고생 학기 중 학원수강이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과외수업이 전면적으

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과외규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과외수업이 자유로워지면서 다시 과열 사교육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의 교육기회와 질에 차이가 생겨 교육의 형평성에 심각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12.8%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통통신비와 함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비목이다(통계청, 2002).

\* 주 저 자 : 박진영 (E-mail : ppy21kr@hanmail.net)

OECD교육통계에 의하면(OECD, 2004)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지출비율은 2001년 현재 8.2%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이 중 사교육비의 비율이 3.4%인데, 사교육비의 지출비중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교육투자규모는 매우 크며 따라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저소득층과 중소도시지역에서도 과외비 지출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는 사교육비부담문제는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문제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은 인적자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Becker와 Tomes(1986)가 개발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적자본투자에 관한 의사결정모형에 따르면 인적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녀로부터 기대되는 인적자본수익률(자녀의 능력수준), 예산제약으로 작용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여력, 그리고 자녀의 인적자본축적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로 요약된다. 자녀수가 감소하더라도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커지면서 인적자본투자가 확대됨을 경제모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즉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미래의 예상되는 수익의 흐름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행위로 간주된다. 이때 교육투자의 수익률은 교육투자를 결정하고 개인의 임금 및 미래 소득향상과 사회지위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계는 물적자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어 교육비의 지출비중은 계속 증가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교육비지출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교육비지출에 관한 분야(김시월, 1999; 김인숙·여정성, 1996), 둘째,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김인숙·여정성, 1996; 문숙재 등, 1996; 이승신, 2002; 이은우, 2004; 정영숙, 1997; 허경옥, 1996; Espenshade, 1984; Lino, 1990; Schwenk, 1986; Turchi, 1979), 셋째, 사교육비지출이나 부담감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야(김시월, 1999; 김인숙·여정성, 1996; 박배진, 1997; 윤성인, 1997; 이승신, 2002; 정영숙, 1996a;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실태와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이며 자녀수가 적은 가계에서 한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고 학생의 학교 급에 따라 지출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경제적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재무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다. 사교육비 지출을 투자행위로 본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재무성과의 손실을 측정해 보는 것은 가계의 합리적인 교육투자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잠재적인 가계소득을 결정지울 수 있는 인적자본투자인 사교육비지출의 실태를 살펴보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교육비지출이 현재의 재무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사교육비지출을 위한 가계의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될 미래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의 과열된 사교육 풍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투자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인적자본이론과 선별가설이 있다.

### 1. 인적자본이론

자본은 크게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적자본이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자본을 창출·유지·증식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자본이란 최근에 와서야 포괄적 의미의 자본으로 인식되었으며,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지식, 직업경험, 기술 및 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특성 등이 포함되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미래소득의 흐름을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Ericson, 1991; Jones & Peck, 1993).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 경제학자인 Marshall (1956)이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로, Schultz에 의해 본격화 되었다. Schultz(1961)는 인적자본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지식·건강과 같은 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학교교육, 직장연수, 건강관리, 이주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Denison(1974)은 1929-1969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평균 경제성장을 3.41%였는데, 그 중 경제성장을의 1/4인 0.92%가 인적자본인 지식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했다(조우현,

2002: 207-242). Mincer와 Polachek(1975)은 개개인의 인적 자질은 투자로 개발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Mehta(1976)는 창조성, 도덕적 가치, 관심 또는 흥미 등을, DiMaggio(1982)는 음악·미술·공예·재봉 등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을 인적자본에 포함시켰다. Becker(1976)는 개개인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는 행동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았으며, 이러한 투자로는 학교교육이 일반적이며, 학교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장래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결국에는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Becker(1976)는 학교교육은 처음부터 대가를 지불해주지는 않지만 장래에 지속적인 대가를 부여하는 특성이 있어서 경제적·물리적 투자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Kendrick(1982)은 1960-1973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은 4.44%였는데, 이 중 경제성장률의 1/4인 1.1%가 교육을 통해 투입된 노동의 질 향상과 지식의 진보에 기인한다고 하였다(조우현, 2002: 207-242). Blau와 Ferber(1986)는 대학교육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비용과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상실이라는 간접비용을 비교하여 얻는 이득이 충분히 클 때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며, 미국의 경우 대학교육의 수익평균은 10-15%정도라고 하였다. Bryant(1990)는 인적자본의 축적에는 시간적·재정적 투자가 요구되며, 학교교육은 처음부터 대가를 지불해주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직업 또는 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다. 정규교육, 직장에서의 경험획득, 건강관리 등이 주목할 만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활동이며, 합리적 사고를 하는 개개인은 기대되는 수익률과 비용(coast)이 동일해질 때 까지만 학교교육에 투자한다고 하였다. Becker(1993)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백인남성의 경우에 능력을 통제한 후 대학교육의 수익률은 12% 이상이라고 하였다. 인적자본연구는 최근에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가정의 지출비(Espenshade, 1984; Lino, 1990, 1994), 인적자본투자로서의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연구(Blau, 1992; Joesch, 1994) 등이 미국의 경제학자와 가정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인적자본투자는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미래의 잠재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2. 선별가설

선별이란 어떤 요인 또는 물건의 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질적 측면에 따라 개인 혹은 제품을 분류하는 도구를 선별도구라고 한다(Stiglitz, 1975).

선별가설은 인적자본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대두되었으며, 인적자본이론에서의 교육·생산성·소득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선별가설에 따르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교육에 의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교육을 노동자들이 가진 재능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Layard & Psacharopoulos, 1974). 즉 선별가설에서는 대학이 단순히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곳이 아니라 대학교육이 능력있는 사람과 능력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혹은 분류과정(sorting process)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Lang & David, 1986; Liu & Wong, 1982; Riley, 1979; Stiglitz, 1975; Weiss, 1995; Wolpin, 1977).

Arrow(1973)는 선별가설을 주도하였는데, 개인의 생산능력이 완전하게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고하면서 교육이외에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교육은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Layard & Psacharopoulos, 1974). 즉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을 잘 알고 있는 개인과는 달리, 고용주는 그것을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통계적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지표나 신호를 가진 사람을 대개 어느 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조건부 기대치를 갖게 되며(이정우, 1995: 70-104), 이때 주로 학력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Stiglitz(1975)는 어떤 개인이 보다 생산적인 특성을 구비한 것으로 분류되면 그 분류결과 자체로 상대적인 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별에 동원되는 정보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육이 선별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학력 간 소득격차의 상당부분은 교육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보다 과대평가되고, 사람들은 선별가설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을 가는 것이 채용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교육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포화상태에 있게 된다. 교육에 대한 수요포화상태는 과잉교육열과 비정상적·비효율적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학위인플레이션을 낳게 된다(정영숙, 1996b).

Michael(1982)과 Jorgenson과 Fraumeni(1989)의 실증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교육이 수익성 좋은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력은 결혼뿐만 아니라 채용, 사회적 지위상승, 성취감, 동료집단의 형성 및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수요는 항상 높을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별가설에 의하면 교육은 채용, 결혼, 지위상승, 성취감 등에 있어서 개인에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므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과 선별가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본이론을 지지하거나 선별가설을 지지하는 경우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커지고 이러한 요구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므로 사교육의 실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

### 3.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복지(재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복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영숙(1996)의 연구에서는 중·고교생이 있는 가계의 교육비는 총소비지출액의 24.5%를 차지하며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가 소득의 크기나 경제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사교육비에 지출을 할애하는 경향이 사교육비와 경제적 복지수준과의 부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한다고 하였다. 정영숙(1996)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가 다른 소비항목들과 더불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위해 비목별 지출비중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사교육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감이 하락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김인숙·여정성(1996)의 연구에서는 학습교육비가 재능교육비보다 가계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다수의 가계가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주관적인 압박감은 많이 느끼지 않는 것으로 답하였다.

첫 자녀가 중학생인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배진(1997)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가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시월(1999)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소득, 사교육비부담감,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 부인의 학력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부담감이 클수록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이 낮아지고 사교육비지출이 큰 가계의 경우 오히려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신(2002)의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학부모의 약70%정도가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높은 가계일수록 가계의 경

제적 어려움을 많이 인식하고 가족의 수입만족도도 낮게 나타나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교육비지출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이유는 사교육비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경우의 안도감과 과다한 사교육비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복지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주관적인 복지만을 측정하였다. 가계의 경제적 복지란 욕구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충족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 경제복지와 주관적 경제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경제복지란 가계자산, 소비지출구조, 가계소득, 소득의 안정도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경제지표에 의해 측정되는 개념이다. 반면에 주관적인 경제복지란 가계의 경제적, 재정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측정되며, 재무만족도, 재정 만족도,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재정관리에 대한 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 경제적 복지감, 가정생활만족도, 재무목표에 대한 달성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체계적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에서 산출변수로 측정된다. 산출은 요구와 자원을 투입하여 관리적 하위체계에서 행해진 관리행동의 결과로서 생산된 물질, 에너지,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투입과 과정의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Heck & Douthitt, 1982) 산출에서 나타나는 사용된 자원의 양은 만족을 제공하고 요구의 충족은 만족의 형태로 나타난다(Deacon & Firebaugh, 1988).

본 연구에서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관적 경제복지를 측정할 경우 가계 자산관리(소비지출)의 객관적인 성과를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객관적 재무성과의 측정을 선행해야만 그 다음으로 가계의 자산관리(소비지출)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재무연구에 있어서 객관적 경제지표 연구의 중요성은 가계 자산관리(소비지출)의 결과가 어떠한 객관적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 가능하게 해 주는데 있다. 주관적 경제복지 연구는 이러한 가계의 자산관리(소비지출)가 가계의 객관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객관적 재무성과의 분석은 가계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경제복지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재무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재무성과'라는 용어는 경영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지만 가계 재무분야에서는 선행연구가 없고 객관적 재무지표, 재무안전성, 재무전선성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객관적 경제복지에 관

한 연구들은 자산구조, 재무비율 등 정태적인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이나 동태의 개념을 내포한 재무성과라는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며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성과의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경영학 분야 용어의 정의를 차용하여 가계 재무분야에 활용하고자 한다.

경영학 분야에서 재무성과 용어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차원으로 나누어지며 성장성은 특정기간의 자산이나 이익의 증가율을 지칭할 때 쓰인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으로 매출액 증가율(김영조, 2002; 박경희·채수아, 2002; 최만기, 1994), 순이익 증가율(최만기, 1994), 시장점유증가율(손성호·김종득, 1996; 인진수, 1998) 등으로 측정된다. 수익성은 매출액 이익률(인진수, 1998; 최만기, 1994) 자기자본이익률(김영조, 2002; 박경희·채수아, 2002; 최만기, 1994) 등으로 측정되며, 안정성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 등으로 측정된다(최만기, 1994).

본 연구에서는 가계 재무성과를 성장성 차원에 초점을 두어 '특정기간의 순자산총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되므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인 순자산을 측정하였다.

#### 4.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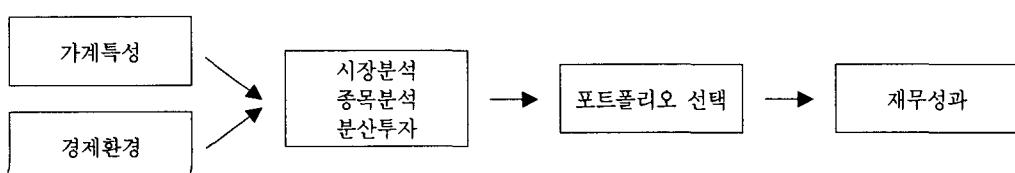
자산관리자는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투자에서 가능한 한 많은 투자수익을 올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산관리의 성과는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투자를 결정하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투자수익은 항상 불확실하다. 이처럼 자산 관리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투자결정에서 투자수익률(rate of return)과 함께 투자위험(risk of return)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투자위험은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의 재무적 위험, 경영위험, 준거집단에 의한 위험 등을 포함하는 비체계적 위험은 한 가정이나 몇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므로 상이하고 광범위하여 가정별로 예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는 투자기회집합들 중에서 효율적 프런티어 선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에 투자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효율적 프런티어는 기회집합의 표면에 있는 포트폴리오로서 이 조합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위험을 분산시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분산투자로써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non-diversifiable risk)이라고 하고,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이라고도 한다. 체계적 위험에는 이자율 위험, 구매력위험, 시장위험 등이 있다. 체계적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응으로서는 시장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들 수 있는데, 시장분석은 경기순환, 경제정책변수, 경기지표 등 경제변수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기본적 분석은 자산의 내재가치를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이형순, 1986).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투자해야하고 합리적으로 시장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대응행위는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구성의 규범적 모형에 입각하더라도 효율적 프런티어가 다양한 조합으로 존재하게 되며, 다양한 기본적 분석과 시장분석의 결과로서 가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다양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재무성과 즉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취합하여 분석틀로서 연역해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수익률의 공분산이 낮아지는 위험이 분산된 투자조합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 효율적 프런티어 경계면에 있는 조합으로 개인의 위험선호에 맞는 투자를 해야 가장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무위험자산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서는 Tobin의 분리정리에 따라 차입과 대출을 통해서 추가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차입과 대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효용을 얻을 수밖에 없다. 셋째, 자산의 수준이 효율적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자산의 수준이 낮은 경우 고위험 자산에 분산투자하기 어렵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가 일어난다. 넷째, 체계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식투자에서 기업분석이 필요하듯이 개별 자산종목에 대한 분석능력이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포트폴리오 접근법에 의한 재무성과 분석틀

이러한 분석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재무성과 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분산투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계의 자산수준별로 그러한 합리적 투자가 제약받는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저자산 계층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가격변동이 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재무성과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저자산 계층의 고가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재무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산계층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재무관리에서 차지하는 의미 역시 자산계층별로 다를 것이다. 사교육비는 단일항목으로는 비교적 지출에서의 비중이 커 가계의 재무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자산 계층 및 중간자산 계층에 있어서 사교육비의 추가적인 지출은 합리적 분산투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것은 결국 재무성과의 상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사교육비지출이 재무성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자산계층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연령, 학력, 취업형태, 자녀수, 자녀연령, 거주지역, 자가소유여부, 순자산액, 부채액, 연간총근로소득, 월평균생활비로 설정하였다.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연령, 학력, 취업형태, 거주지역, 자가소유여부, 거주외부동산 소유여부, 주식 등 금융자산 보유여부,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보유여부, 부채의 보유여부, 월평균근로소득, 월평균생활비<sup>1)</sup>, 월평균저축액, 건강상태, 주관적 경기전망으로 설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회귀분석의 특성상 인과관계의 선후는 이론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월평균생활비 변수가 재무성과의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소비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월평균생활비 변수는 재무성과의 종속변수이다. 그러나 소비수준의 톱니효과(ratchet effect)가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달라 질 수 있다. 한번 높아진 소비수준은 비가역적이다. 따라서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월평균생활비는 재무성과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월평균생활비가 많으면 재무성과는 낮아진다라는 명제도 성립될 수 있다. 이 둘의 구별은 관계부호의 방향으로 정할 수 있다. 양의 관계이면 월평균생활비는 재무성과의 종속변수이고 음의 관계이면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교육비지출을 결정하는 관련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전체가계와 자산계층별 재무성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가계의 재무성과를 결정하는 관련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어떠한가?
- <연구문제 5> 사교육비 지출에 따라 재무성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2. 분석자료 및 측정도구의 구성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2000년과 2003년에 조사한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3차년도 자료 및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 자료는 3차와 6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3,628가구자료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주의 연령분포가 주로 30세-50세 사이에 분포하므로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50세 이하인 1,669가구의 가구용자료 및 개인용자료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자산과 부채 : 가계가 저축과 차용을 통하여 획득한 것으로, 해당 자산과 부채의 보유여부 및 금액을 말한다. 자산과 부채의 구성요소 및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 (2) 주관적 경기전망 : 경기에 대한 응답자의 전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다.
- (3) 재무성과 : 종속변수로서 재무성과는 특정기간의 순자산 총액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본 연구의 대상기간은 2000년과 2003년인데, 2003년의 자산액과 부채액은 소비자물가지수 110.7로 디플레이트 하였다.

&lt;표 1&gt; 자산과 부채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측정도구
자산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보험 사회보험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기타금융자산 거주부동산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임차부동산	은행요구불예금, 은행 저축성예금, 기타 금융기관예금 주식, 국채, 회사채, MMF 및 기타 간접투자자산 저축성보험 불입총액 국민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 및 기타 아직 타지 않은 계 불입총액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현금 등 기타 금융자산 토지 건물 등 주거용 부동산의 현시세 주거용 부동산 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현시세 전세, 월세 등 임차한 부동산의 보증금
부채	금융기관부채 비금융기관부채 빌린 돈 부어야 할 계 기타부채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금융기관 부채 회사로부터 빌린 돈 등 비금융기관부채 개인적으로 빌린돈 또는 친척/친지에게 빌린 돈 등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다른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부채 부동산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lt;표 2&gt;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응답범주	N(%)	변수명	응답범주	N(%)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35~39세 40~44세 45~50세	97(6.3) 380(24.5) 488(31.5) 585(37.7)	가구주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336(21.1) 711(45.9) 513(33.1)
고등학생 (재수생)이하 자녀수	1 2 3이상	347(28.2) 777(63.1) 108( 8.7)	자가 소유여부	자가 전세 월세	960(57.5) 446(26.7) 177(10.6)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958(57.4) 490(29.4) 221(13.2)	거주지역	서울 광역시 시·군	396(23.7) 520(31.2) 753(45.1)
경제상태	매우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3(0.2) 87(5.2) 665(39.8) 538(32.2) 374(22.4)	생활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족	8(0.5) 509(30.8) 919(55.7) 198(12.0) 15(0.9)
주부 평소활동	주로 일을 하고 있음 가사를 돌보고 있음 기타	711(52.2) 540(39.6) 66(8.1)	주부 취업형태	임금 비임금자영업 가족일돕기	448(63.7) 123(17.5) 132(18.8)

\*2003년 data 기준임.

#### IV. 결과 및 해석

##### 1. 기초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계의 재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 2. 사교육비지출실태

###### 1) 사교육비지출액과 경제적 부담정도

자녀연령별 사교육비지출실태는 <표 4>와 같다. 전체가계에서는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계층별로는 저자산계층에서는 전체가계와 같이 중학생, 중간자산계층에서는 초등고학년, 고자산계층에서는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gt; 조사대상가계의 재정적 특성

(단위: 만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생활비	172.8	100.8	부채	3003.2	8054.5
월평균저축액	47.4	74.5	임대보증금	1898.4	3968.2
총근로소득	2728.4	2000.8	총금융자산	3503.8	5894.4
금융자산	1589.5	4112.6	총자산	15338.4	33239.2
부동산	11151.7	20809.0	순자산	12258.1	32447.9

\*2003년 data 기준임.

&lt;표 4&gt; 자녀연령별 사교육비 지출액

(단위: 만원)

전체			저자산계층			중간자산계층			고자산계층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취학전	152	22.592	17.782	46	18.130	21.093	54	23.315	15.376	50	26.020	16.690
초등저학년	195	32.615	21.825	58	21.448	15.431	80	32.488	18.559	55	44.491	26.023
초등고학년	209	36.732	24.850	63	21.524	15.774	83	38.615	21.157	59	51.254	28.387
중학생	211	44.498	34.413	59	28.814	22.282	60	37.633	17.833	85	59.412	42.867
고등학생	225	36.876	37.244	64	15.047	21.208	70	28.929	23.241	81	60.037	42.595

\*2003년 data 기준임.

&lt;표 5&gt; 자녀 출생 순서별 사교육비 지출액

(단위: 만원)

전체			저자산계층			중간자산계층			고자산계층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첫째자녀	992	27.600	20.890	234	20.154	14.852	343	23.697	12.993	392	35.401	25.562
둘째자녀	685	21.121	15.649	154	15.844	8.027	247	18.883	10.464	269	26.320	20.729
셋째자녀	66	17.591	15.152	14	12.643	6.109	27	14.519	6.767	22	23.818	22.462
넷째자녀	4	15.250	8.180	3	15.000	10.000				1	16.000	
사교육비	1,664	25.736	30.055	534	13.899	18.868	532	24.227	22.717	541	39.656	38.383

\*2003년 data 기준임.

자녀의 출생순서별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액은 <표 5>와 같다. 첫째자녀의 경우 27만 6천원, 둘째자녀 21만 1천2백원, 셋째자녀 17만 5천9백원, 넷째자녀의 경우 15만 2천4백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출생순서가 내려갈수록 사교육비지출이 감소한다고 한 이은우(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액은 25만 7천4백원으로 나타났다. 이 액수는 이승신(2002)의 2000년 자료의 연구결과 14만9천3백원보다 약 10만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이성립(2005)의 연구에서는 월평균사교육비지출액이 16만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보다 9만원 가량 더 적었다. 이는 표집시기와 표집대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교육기관 이용여부에서도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표 6>). 전체가계에서 첫째자녀의 경우는 80.5%, 둘째자녀는 77.5%, 셋째자녀의 경우 61.1%가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자산계층별 분석에서도 유사

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출생순서가 내려갈수록 사교육비지출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이은우, 2004)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사교육비지출액과 사교육기관의 이용율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가정을 형성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새로운 가족구성원인 첫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각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로 인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정도에 대해서 “매우 부담된다”가 27.0% “약간 부담된다”가 38.9% “보통이다”가 18.7%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가 4.4%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가 11.1%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6.0%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계층별로도 저자산계층 62.9%, 중간자산계층 68.6%, 고자산계층 66.7%로 나타나 자산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 학부모의 70%정도가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

&lt;표 6&gt; 자녀 출생 순서별 사교육기관 이용여부 및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빈도, %)

이용여부 출생순서		이용	이용안함	경제적 부담정도	N(%)
전체	첫째 자녀	992(80.5)	240(19.5)	매우부담 약간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안 됨 전혀 부담 안 됨	316(27.0) 455(38.9) 219(18.7) 51(4.4) 130(11.1)
	둘째 자녀	686(77.5)	199(22.5)		
	셋째 자녀	66(61.1)	42(38.9)		
저자산계층	첫째 자녀	234(67.4)	113(32.6)	매우부담 약간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안 됨 전혀 부담 안 됨	94(29.3) 108(33.6) 41(12.8) 6(1.9) 72(22.4)
	둘째 자녀	155(63.8)	88(36.2)		
	셋째 자녀	14(43.8)	18(56.3)		
중간자산 계층	첫째 자녀	343(82.3)	74(17.7)	매우부담 약간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안 됨 전혀 부담 안 됨	117(29.3) 157(39.3) 74(18.5) 13(3.3) 38(9.5)
	둘째 자녀	247(79.9)	62(20.1)		
	셋째 자녀	27(61.4)	17(38.6)		
고자산계층	첫째 자녀	392(91.0)	39(9.0)	매우부담 약간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안 됨 전혀 부담 안 됨	99(23.6) 181(43.1) 97(23.1) 28(6.7) 15(3.6)
	둘째 자녀	269(86.8)	41(13.2)		
	셋째 자녀	22(78.6)	6(21.4)		

\*2003년 data 기준임.

&lt;표 7&gt; 사교육비지출액의 소득과 생활비대비비율

(단위: 만원)

	전체	자녀수-1명			자녀수-2명			자녀수-3명이상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월평균사교육비	1,664	25.736	30.055	345	21.406	24.522	775	38.501	30.679
	소득대비비율	1,577	0.118	0.151	340	0.095	0.117	755	0.169	0.159
	생활비대비비율	1,663	0.131	0.127	345	0.111	0.101	775	0.196	0.114
저자산 계층	월평균사교육비	345	20.548	19.738	103	12.534	14.118	210	24.138	20.212
	소득대비비율	333	0.136	0.160	102	0.095	0.148	200	0.150	0.138
	생활비대비비율	345	0.142	0.128	103	0.087	0.093	210	0.167	0.136
중간 자산 계층	월평균사교육비	417	30.573	21.487	108	17.407	16.826	265	34.230	20.788
	소득대비비율	410	0.148	0.126	107	0.089	0.106	259	0.166	0.123
	생활비대비비율	417	0.175	0.108	108	0.103	0.089	265	0.195	0.101
고자산 계층	월평균사교육비	431	48.568	37.622	121	32.917	31.854	282	53.660	37.391
	소득대비비율	424	0.168	0.178	118	0.104	0.099	279	0.189	0.199
	생활비대비비율	431	0.198	0.112	121	0.139	0.113	282	0.220	0.100

\*2003년 data 기준임.

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승신, 2002; 통계청, 2002).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교육실태 및 국민의식조사(1997) 연구에서도 학부모의 77.5%가 사교육비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여 본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며, 박미희와 여정성(2000)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가계와 개인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2) 사교육비지출액의 소득과 생활비대비비율

전체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액인 25만 7천4백원은 소득대비비율 11.8%이며 생활비대비비율은 13.1%를 차지한다(<표 7>).

&lt;표 8&gt; 사교육비의 소득과 생활비대비비율의 분포

(단위: N(%))

소득대비비율				생활비대비비율				
전체	저 자산 계층	중간 자산 계층	고 자산 계층	전체	저 자산 계층	중간 자산 계층	고 자산 계층	
10%미만	847(53.7)	315(64.4)	240(47.2)	255(48.4)	767(46.1)	319(59.7)	217(40.9)	192(35.5)
20%미만	449(28.5)	102(20.9)	179(35.2)	160(30.4)	429(25.8)	113(21.2)	153(28.8)	156(28.8)
30%미만	166(10.5)	37(7.6)	58(11.4)	66(12.5)	307(18.5)	70(13.1)	117(22.0)	116(21.4)
40%미만	65(4.1)	17(3.5)	15(3.0)	30(5.7)	128(7.7)	25(4.7)	36(6.8)	62(11.5)
50%미만	20(1.3)	6(1.2)	10(2.0)	4(0.8)	24(1.4)	3(0.6)	8(1.5)	12(2.2)
50%이상	30(1.9)	12(2.5)	6(1.2)	12(2.3)	8(0.5)	4(0.7)		3(0.6)

\*2003년 data 기준임.

<표 9>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sup>a</sup>

(단위: 만원)

독립변수	전체 / $\beta$ (Beta)	저 자산 계층 / $\beta$ (Beta)	중간 자산 계층 / $\beta$ (Beta)	고 자산 계층 / $\beta$ (Beta)
월평균생활비	0.148*** / (0.499)	0.186*** / (0.526)	0.150*** / (0.426)	0.166*** / (0.583)
고등학생이하자녀수	11.219*** / (0.219)	6.615*** / (0.207)	11.725*** / (0.320)	16.004*** / (0.243)
거주지:서울(R:광역시, 시·군)	7.614*** / (0.109)	5.798** / (0.116)	5.603** / (0.110)	10.584*** / (0.132)
학력(교육년수)	2.322*** / (0.097)		2.701*** / (0.156)	
자가여부(자가=1, 비자가=0)	3.639** / (0.060)			
총자산 <sup>a</sup>	0.052*** / (0.094)		0.047* / (0.092)	
총근로소득(연간) <sup>a</sup>	0.127* / (0.069)			
부채 <sup>a</sup>	-0.015* / (-0.047)			
임금근로자(R:자영업자, 미취업자)			4.138* / (0.091)	
F값	155.024***	60.718***	50.240***	117.742***
수정된 R <sup>2</sup>	0.516	0.349	0.424	0.456

\*p&lt;.05, \*\*p&lt;.01, \*\*\*p&lt;.001, a: 단위(백만원), R: 준거집단(Reference group), #: 2003년 data 기준임.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부담정도가 전체소비지출의 약 7.6%를 차지한다고 한 이성립(2005)의 연구결과보다는 높은 비율이다. 자녀수별 사교육비의 소득대비비율과 생활비 대비비율을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일 때는 21만4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이는 소득대비비율9.5%, 생활비대비비율11.1%이다. 자녀가 3명이상일 때는 42만 2천7백원을 지출하며, 이는 소득대비비율19.1%, 생활비대비비율20.9%를 차지한다. 자산계층별 분석에서도 저자산계층의 3자녀이상 일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의 소득·생활비 대비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지출액이 많아지며, 사교육비지출액의 소득대비비율 생활비대비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의 지출액이 많아지나(문숙재·김성희, 1995; 문숙재 등, 1996; 박미희·여정성, 2000) 자녀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한 연구(문숙재·김성희, 1995; Becker, 1993; Espenshade, 1984; Lino, 1990) 결과들과 일치한다. 자녀수에 비례해서 사교육비지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녀수는

공교육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연구결과(정영숙, 1996b)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한편 전체가계와 자산계층별 사교육비지출액이 소득과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소득대비비율은 전체가구와 모든 자산계층에서 10% 미만구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0%미만에서는 중간자산계층, 30~40%미만구간에서는 고자산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대비10%미만지출의 비율도 전체 가구의 경우 46.1%분포를 나타냈다. 자산계층별로는 10% 미만에서는 저자산계층이, 20~30%미만에서는 중간자산 계층이, 40~50%미만에서는 고자산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산계층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소득과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3)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표 9>.

분석에 앞서 자산계층별 분석에서는 저자산계층과 고자산계층에서는 월평균생활비( $\beta=.526, .583$ ), 고등학생이하 자녀수( $\beta=.207, .243$ ), 거주지:서울( $\beta=.116, .132$ )의 순으로 영

&lt;표 10&gt; 전체가계와 자산계층별 재무성과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전 체		순자산 3,600만원 미만		순자산 3,600만원 이상~ 11,000만원 미만		순자산 11,000만원 이상	
	N	평균 / 표준편차	N	평균 / 표준편차	N	평균 / 표준편차	N	평균 / 표준편차
2000년	금융자산	1650	1440 / 3917	535	470 / 1247	525	1424 / 5218	533
	보증금	1545	1825 / 2599	495	1521 / 1644	493	1928 / 2327	506
	금융자산소계	1527	3274 / 5066	493	1958 / 2008	486	3360 / 6435	499
	부동산	1545	5858 / 10860	495	1848 / 4998	494	4046 / 4714	506
	총자산	1525	9073 / 12298	492	3821 / 5230	486	7428 / 7916	499
	부채	1666	1809 / 4428	536	1437 / 2971	531	1243 / 2388	540
	순자산	1522	7353 / 11178	491	2367 / 4529	485	6175 / 7126	498
2003년	금융자산	1610	1413 / 3321	537	219 / 475	532	982 / 1322	541
	보증금	1610	1740 / 3606	537	1129 / 1597	532	1869 / 2685	541
	금융자산소계	1610	3153 / 5075	537	1348 / 1640	532	2850 / 3001	541
	부동산	1609	10117 / 18893	537	1278 / 3039	532	5025 / 5049	540
	총자산	1609	13272 / 20262	537	2626 / 3319	532	7876 / 4269	540
	부채	1607	2549 / 5248	535	2353 / 4592	532	1679 / 3621	540
	순자산	1606	10694 / 18316	535	278 / 3166	532	6196 / 1869	539
(증가분) 격차	금융자산	1593	-8 / 4338	535	-250 / 1255	525	-446 / 5303	533
	보증금	1494	-95 / 3350	495	-344 / 1879	493	-5 / 2543	506
	금융자산소계	1478	-106 / 5795	493	-563 / 2073	486	-491 / 6609	499
	부동산	1494	4132 / 14662	495	-580 / 5186	494	918 / 5479	505
	총자산	1476	3954 / 15469	492	-1161 / 5522	486	413 / 6827	498
	부채	1604	763 / 5465	534	929 / 4408	531	439 / 3470	539
	순자산	1471	3142 / 14515	490	-2041 / 4746	485	57 / 6987	496

\*자산계층은 균등분포임

향을 미쳤으며, 중간자산계층에서는 세 변수 이외에도 학력( $\beta=1.156$ ), 총자산( $\beta=.092$ ), 임금근로자( $\beta=.091$ )도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전체가계에서는 월평균생활비( $\beta=.499$ ), 고등학생이하자녀수( $\beta=.219$ ), 거주지역( $\beta=.109$ ), 학력( $\beta=.097$ ), 총자산( $\beta=.094$ ), 총근로소득( $\beta=.069$ ), 자가소유여부( $\beta=.060$ ), 부채( $\beta=-.047$ )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sup>2)</sup> 즉 월평균생활비가 많을수록, 고등학생이하자녀수가 많을수록,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총자산과 총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주택소유가 자가일수록, 부채가 적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생활비가 많을수록 사교육비에 지출할 여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 총소비액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높다고 한 이승신(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고등학생이하자녀수는 사교육비지출을 자녀수에 비례해서 증

2)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대부분 0.5 이하로 나타났다(부록 참조). 그러나 총근로소득과 월평균 생활비는 0.66, 총자산과 월평균생활비는 0.58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0.7이하로서 심각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다중공선성이 있음을 반영하여 해석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월평균생활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총자산과 총근로소득변수의 회귀계수가 편의(bias)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사교육비지출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사교육비지출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문숙재·김성희, 1995; 박미희·여정성, 2000; 양정선·김순미, 2003; 이은우, 2004; Becker, 1993; Lino, 1990) 결과와 일치한다.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사교육비지출이 증가한 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보다 교육열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도 서울의 경우 사교육비지출액이 많다고 한 선행연구(김인숙·여정성, 1996; 박미희·여정성, 2000; 양세정·여윤경, 2000; 양세정·이윤금, 1997; 양정선·김순미, 2003; 이승신, 2002; Huston, 1996) 결과와 일치한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총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부채가 적을수록 자녀에 대한 투자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교육비지출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숙재 등(1996), Bryant(1990)와 Schwenk(198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양세정과 이윤금(1997)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교육비구성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일정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가치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주었다. 주택을 소유

하는 경우 사교육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주택자금마련을 위한 비목의 지출이 없는 만큼 자녀의 사교육비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을 소유 할수록 사교육비지출이 증가한다고 한 박미희와 여정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주거소유형태와 교육비지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 정영숙의 연구(1996b) 결과와는 상반된다.

### 3. 사교육비지출과 재무성과의 관련성

#### 1) 재무성과 현황

전체가계와 자산계층별 재무성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전체가계의 재무성과는 2000년에 비해 2003년도에는 3,142만원의 순자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계층별 재무성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순자산 3,600만원미만집단에서는 3년간 2,041만원의 순자산 감소가 있었고, 순자산 3,600만원이상-1억1,000만원미만집단에서는 57만원의 순자산증가가 있었으며, 순자산 1억1,000만원이상 집단에서는 1억1,277만원의 순자산증가가 있었다. 순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재무성과를 내고 저자산계층에서 가장 적은 재무성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순자산이 적은 가계에서는 순자산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힘이 들며, 필요한 지출을 위해 부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준다. 이것은 2003년의 부채가 2000년에 비해 929만원 늘어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한편 순자산이 많은 가계에서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하고도 각종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단기의 자산변동을 본다면 부의부 빈의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가계와 자산계층별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표 11>). 전체가계에서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가소유여부, 부동산임대소득,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저축액, 주관적 경기전망, 금융자산(주식·채권·신탁), 거주주택외부동산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을 소유 할수록, 월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주관적 경기전망이 긍정적일수록, 거주주택외부동산과 부동산소득을 보유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주식·채권·신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재무성과가 높아서 생활비지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재무성과를 설명하는 정도는 25.3%였다. 주관적 경기전망의 경우에는 2000년에 비해 2003년의 경제상태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주관적 경기전망이 부정적이었을수록 재무성과가 낮아졌고, 주관적 경기전망이 긍정적이었을수록 실제적인 경제상황과 일치하였으므로 재무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식·채권·신탁자산의 경우 확정금리상품이 많은 은행예금이나 보험 등의 금융상품들은 달리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당시의 시장환경이 주식·채권·신탁자산의 수익률 향상에 불리한 상황이어서 재무성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계층별 재무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산

<표 11>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전 체 / $\beta$ (Beta)	저 자산 계층 / $\beta$ (Beta)	중간 자산 계층 / $\beta$ (Beta)	고 자산 계층 / $\beta$ (Beta)
학력(교육년수)		-463.275* / (-0.110)		
자가여부(자가=1,비자가=0)	1742.607* / (0.058)			
총근로소득(만원)				-1.606** / (-0.165)
금융소득(이자, 양도차액)(유=1, 무=0)				-5257.169* / (-0.090)
부동산임대소득(유=1, 무=0)	4323.706** / (0.070)	-6203.216** / (-0.135)		
월평균생활비(만원)	45.880*** / (0.304)	-12.254*** / (-0.155)		73.912*** / (0.423)
월평균사교육비(만원)			-43.8 25** / (-0.135)	
월평균저축액(만원)	24.485*** / (0.128)			59.933*** / (0.241)
주관적 경기전망	-1867.558*** / (-0.108)			-3957.428*** / (-0.164)
금융자산(은행예금)(유=1, 무=0)		1311.816** / (0.127)	1378.326* / (0.094)	
금융자산(주식, 채권, 신탁)(유=1, 무=0)	-4252.127** / (-0.070)			-6931.729** / (-0.107)
거주주택외부동산(유=1, 무=0)	6862.478*** / (0.182)			8326.166*** / (0.188)
F값	66.326***	8.605***	5.763**	26.317***
수정된 R <sup>2</sup>	.253	.064	.021	.276

\*p<.05, \*\*p<.01, \*\*\*p<.001

계층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부동산임대소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월평균생활비지출이 적을수록, 은행예금을 보유하는 경우에 재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변수들의 설명력은 6.4%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수준과 직업지위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지위가 낮아진다. 따라서 저자산계층의 경우에 교육수준이 높아서 어느 정도 높은 직업지위와 생활수준을 누릴 것이라 기대한 사람 보다는, 교육수준이 낮아서 높은 직업지위에 있을 수 없고, 자산수준이 낮아서 부동산은 소유할 수도 없고, 자신이 열심히 해야만 자산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비지출을 아끼고, 은행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사람이 재무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중간자산계층에서는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이 적고 은행예금을 보유하는 경우에 재무성과가 높았다. 변수들의 설명력은 2.1%였다. 고자산계층에서는 월평균생활비지출액( $\beta=.423$ ), 월평균저축액( $\beta=.241$ ), 거주주택외 부동산( $\beta=.188$ ), 총근로소득( $\beta=-.165$ ), 주관적 경기전망( $\beta=-.164$ ), 금융자산(주식·채권·신탁)( $\beta=-.107$ ), 금융소득( $\beta=-.090$ )의 순으로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즉 고자산계층에서는 월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거주주택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총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주관적 경기전망이 긍정적일수록, 금융자산(주식·채권·신탁)과 금융소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재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27.6%였다. 고자산계층에서는 저자산계층과 달리 재무성과가 높아서 생활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재무성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가계와 각 자산계층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요인들 중에서 월평균사교육비지출액은 중간자산계층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3) 사교육비지출과 재무성과

전체가계에서는 재무성과가 높아서 생활비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산계층에서는 생활비를 적게 써야만 재무성과가 높아지며, 고자산계층에서는 전체가계에서와 같이 재무성과가 높아서 생활비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중간자산계층에서만 사교육비지출이 재무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간자산계층에서는 사교육비지출액 1만원당 연간 약 44만원 가량의 재무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간자산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 사교육비가 재산 감소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저자산계층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교육을 시키고는 싶지만 뜻대로 하기가 쉽

지 않은 형편이다. 즉 저자산계층에서는 생활비를 적게 지출한 가계일수록 재무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은행예금이 많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즉 생활비를 줄여 저축하는 길이 저자산계층의 주된 자산증식수단임을 알 수 있고, 다른 투자를 통한 자산증식의 대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고자산계층에서는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지만 재무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를 많이 쓰더라도 재무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다만 중간자산계층에서 교육은 해야 하고 자산도 증식해야 하는데 사교육비에 밀려서 재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평생고용이 무너진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밥벌이' 기술을 익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처분소득의 40~50%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중산층 학부모들이 지난해 지출한 사교육비가 24조원(GDP의 3%)이 넘는다는 사실(조선일보, 2006년 8월3일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지출은 인적자본이론과 선별가설에서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의 수익을 예측하는 투자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한 사교육투자는 재산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간자산계층의 경우 무리를 해서라도 사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장기적 재무성과를 위한 기타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사교육비 지출이 그 지출액 이상의 재무손실을 가져온다고 해서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자녀교육에의 투자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타 다른 금융자산에의 투자보다 더 큰 보상(pay off)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일 수 있다. 따라서 재무성과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교육 투자가 비합리적이라는 점보다는 자산계층별로 사교육비 부담이 재무관리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자산계층 모형과 중간자산계층 모형의 설명력이 6.4%와 2.1%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 할지라도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본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자료(2000년과 2003년)를 사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50세 이하인 1,669가구의 가구용자료 및 개인용자료를 대상으로 첫째, 사교육비지출 실태를 알아보고 둘째, 사교육비지출액과 가

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와 그 영향력을 살펴보며 셋째, 사교육비지출과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보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녀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로 인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6.0%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액은 소득대비비율 11.8%이며 생활비대비비율은 13.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만을 고려한 수치이므로 공교육비까지 합하게 되면 가계의 교육비지출액의 소득대비, 생활비대비 비율은 한층 더 높아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먼저 모든 가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충실히 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녀수별 사교육비의 소득대비비율과 생활비대비비율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며, 자녀수별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액이 소득과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분포 역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지출비율이 높은 구간에 속하는 사례의 수가 증가하였다.

셋째,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은 월평균생활비가 많을수록, 고등학생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총자산과 총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주택소유가 자가일수록, 부채가 적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생활비가 적고, 총자산이 적고, 부채가 많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저자산가계나 자녀수가 많은 가계, 거주지역이 서울이 아닌 가계, 학력이 낮은 가계가 경험하게 되는 교육의 기회와 절은 이와는 상반된 가계가 경험하게 되는 교육과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이 심하게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질적인 면을 고려한 공교육프로그램개발, 저자산가계와 다자녀, 저학력가계에 대한 교육지원, 서울지역에 제한되지 않는 전국의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전체가계와 자산계층별 재무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가계의 재무성과는 2000년에 비해 2003년도에는 3,142만원의 순자산 증가가 있었으며, 자산계층별로는 순자산 3,600만원미만집단에서는 2,041만원의 순자산 감소, 순자산 3,600만원이상-1억1,000만원미만집단에서는 57만원의 순자산증가, 순자산 1억1,000만원이상 집단에서는 1억1,277만원의 순자산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자산계층에서 가장 높은 재무성과를 내고 저자산계층에서 가장 적

은 재무성과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가계와 자산계층별에서 각각 달리 나타났다. 특히 중간자산계층에서는 사교육비지출액 1만원당 연간 약 44만원 가량의 재무손실이 발생하여 사교육비가 재산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자산계층이 사교육비지출로 인한 재산감소가 가장 큰 이유는 자산의 수준에 비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그 보다 더 커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간자산계층이 사교육을 선택할 때에는 가계의 경제상태를 염두에 두고 지출액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자산감소까지도 감수하고 미래의 잠재소득의 향상을 추구하는 많은 가계를 위하여 사교육비지출이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어느 정도의 소득증가를 가져오게 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가계의 예산편성뿐 아니라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될 미래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가계의 재정적 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사교육비지출에 차이가 난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 및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절반이상의 가계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교육비지출이 실질적으로 가계에 어느 정도의 재무적 성과를 가져다주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행동인 사교육비지출을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건강상태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른 사교육비지출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사교육비지출액으로 사교육의 양적인 부분만 분석하였으므로 사교육내용의 질적인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접수일 : 2006년 08월 19일

심사일 : 2006년 10월 12일

심사완료일 : 2006년 12월 21일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의 경감 대책. [www.moe.go.kr](http://www.moe.go.kr).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

- 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10(3), 101-121.
- 김영조(2002). 기업가적 전략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환경 및 조직구조와의 적합관계를 중심으로. *전략 경영연구*, 5(1), 69-89.
- 김인숙 ·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 문숙재 · 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4.
- 문숙재 · 김순미 · 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71-184.
- 박경희 · 채수아(2002). 고객만족도와 재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산업의 경쟁정도를 중심으로. *경영논총*, 20(2), 23-55.
- 박미희 ·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박배진(1997).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성호 · 김종득(1996).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과 재무성과. *정보시스템연구*, 5(1), 99-113.
- 양세정 · 여윤경(2000). 부부의 인적자본과 가계소비지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8(8), 141-157.
- 양세정 · 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자녀수와 자녀 성(性)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81-101.
- 양승실(2001).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 기능 재정립. <http://www.inc.or.kr/cica/column5.htm>
- 양정선 · 김순미(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 윤성인(1997).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 가정학회지*, 40(7), 211-227.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경제연구 (구 경제학논집)*, 22(2), 1-31.
- 이정우(1995). 교육과 소득분배. *소득분배론*. 서울:비봉출판사.
- 이형순(1986). 신거시경제론. 서울:박영사.
- 인진수(1998). 기업의 환경과 전략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12(2), 365-389.
- 정영숙(1996a).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 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1-13.
- 정영숙(1996b).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1.
- 정영숙(1997). 사교육비와 교육문화인식. *한국소비자학회 한국 소비문화의 방향*, 66-85.
- 조선일보. 도시 근로자들 '마이너스 인생'. 2006. 8. 3. 1면.
- 조우현(2003). 노동경제학: 이론과 개혁정책. 서울:법문사.
- 최만기(1994). 기업의 전략유형, 문화유형 및 재무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23, 1-40.
- 통계청(2002). 도시가계연보. [www.nso.go.kr](http://www.nso.go.kr).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www.cpb.or.kr](http://www.cpb.or.kr).
- 허경옥(1996). 가계의 자녀양육비의 지출비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8(2).
- 허경옥(1997). 가계의 자녀양육비의 지출액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8(2), 1-19.
- Arrow, K.(1973). Higher education as a filte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3), 193-216.
- Becker, G.(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G. S. & Tomes, N.(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1-47.
- Becker, G. S.(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u, F. D. and Ferber, M.A.(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Prentice-Hall.
- Bryant, W. K.(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Y.
- Deacon, R. E. & Firebaugh, F. M.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on*. Boston Allyn & Bacon.
- DiMaggio, P.(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89-201.
- Erikson, G.(1991). Human capital investments and labor mobil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9(3), 236-254.
- Espenshade, T. J.(1984). *Investing in children-New estimates of parental expenditures*. The Urban Institute Press-Washington, D.C
- Heck, R. Z. & Douthitt, R. A.(1982). Research modelling implication of conceptual framework in family manage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265-276.

- Huston, S. J.(1996). An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 on educational goods and services. *ACCI*, 42, 181-188.
- Jorgenson, D. W. & Fraumeni, B. M.(1989). Investment in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18(4), 35-44.
- Lang, K. & David, K.(1986). Human capital vs. sorting: The effect of compulsory attendance law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August), 609-624.
- Layard, R. & Psacharopoulos, G(1974). The screening hypothesis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5), 985-998.
- Lino, M.(1990).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2-18.
- Lino, M.(1994). Expenditures on a child by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7(3), 2-19.
- Liu, Pal-Wai & Wong, Yue-chim(1982). Educational screening by certificates: An empirical test. *Economic Inquiry*, 20(January), 72-83.
- Mehta, M.(1976).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lan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asia and the far east*. Calcutta: The MacMillian Company of India, Limited.
- Michael, R. T.(1982). *Measuring nonmonetary benefits of education: A survey*. In *financing education: Overcoming inefficiency and inequalit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incer, J. & Polacheck, S.(1975).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576-588.
- OECD(2004).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4.
- Riley, J. G.(1979). Testing the educational screening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5-2), S227-252.
- Schultz, T.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
- Schwenk, F. N.(1986).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housekeeping services, including child care. *Family Economics Review*, 2(4), 15-20.
- Spence, M.(1973). Job market signa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3), 355-374.
- Stiglitz, J.(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65(3), 283-300.
- Turchi, B. A.(1979). The monetary cost of a child: the economics of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n. Co.
- Weiss, A.(1995). Human capital vs. signaling explanations of wages. *Journal of Economics Perspectives*, 9(4), 133-154.
- Wolpin, K. I.(1977). Education and screening. *American Economic Review*, 67(5), 949-958.

## 부 롤

재무성과 관련요인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가구주 연령													
2. 자녀 연령		.41***											
3. 학력(교육년수)		-.26***	-.17***										
4. 고등학생이하자녀수	-.14***		-.06*	.04									
5. 총근로소득(만원)	.06*	-.01	.36***	.01									
6. 월평균생활비(만원)	.15***	.02	.35***	.07*	.66***								
7. 자산	.13***	.09***	.24***	-.00	.43***	.58***							
8. 부채	.09***	.05	.12***	-.00	.24***	.30***	.47***						
9. 자가소유여부	.18***	.15***	.10***	-.01	.18***	.25***	.29***	.09***					
10. 거주지:서울	.05*	.02	.07*	-.07*	.10***	.10***	.16***	.09***	-.12***				
11. 거주지:광역시	.04	-.02	-.06*	.01	-.06**	-.01	-.13***	-.10***	.07**	-.38***			
12. 임금근로자	.01	-.01	.05*	.01	.15***	.09***	-.07**	-.05*	-.00	-.03	.03		
13. 자영업자	.04	-.02	-.01	.03	.11***	.11***	.05	.09***	.01	-.01	-.02	-.17***	

\*p<.05, \*\*p<.01, \*\*\*p<.001